

경북도 “국가발전·지방시대 선도한 지방정부로 도약”

이철우 도지사 도정 브리핑
총예산, 6년간 37.6% 증가율
신산업·농업대전환 등 성과
앞으로 ‘7대 전략산업’ 추진

경북도는 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그간 경북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4년은 변화와 혁신으로 경직된 도정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 3년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며, 국가 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한 실력 있는 지방정부로 도약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도지사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변해야 산다’는 각오로 스스로를 재찍질해왔으며, 전문성을



경북도는 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언론인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성과와 더 큰 발전 방향’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경북도

갖춘 도정을 만들기 위해 화공특강을 300회 이상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경북도는 지난 6년간 총예산이 3조 6263억 원 늘며 37.6% 증가율을 기록했고, 이는 동기간 정부 예산 증가율(31.4%)과 광역자치단체 평균 증가율(32.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통합신공항 유치, 철강과 전자를 넘어서는 신산업 육성 등의 주요 성과를 제시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과 구미 5

공단은 각각 이차전지·반도체특화단지 지로 재편되며 분양률 90%를 넘겼고, 규제자유특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는 경북 산업의 대전환을 입증하는 성과로 평가됐다.

또한, 소득 2배·생산 3배를 실현한 ‘농업대전환’은 정부 혁신전략으로 반영돼 전국 확산 중이며, 광역비자, K-U시티 등 지방시대 의제를 선도해왔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전쟁 선포’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는 지방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결정적 성과로 소개됐다.

이 지사는 향후 도정 방향도 밝혔다. 경북이 제안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은 현 정부 7대 광역공약에 반영됐으며, 도는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7대 전략산업’이 프로젝트 추진 의지도 밝혔다. A 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ABCDEF)에 글로벌 기업(G)을 더한 ‘경북형 ABCDEFG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제조업 혁신, 푸드테크,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 산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재난의 대형화라는 격동의 시대에 경북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목포대교 전경. /목포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본격화

목포대교, 야간경관 명소 자리매김
찾은 고장·단조로운 연출 개선 필요
96억 사업비 확보로 추진 기반 마련

목포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2년 개통된 목포대교는 그동안 목포를 대표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자리매김했으나, 조명 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연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며

총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중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사업비 조정을 거쳐 96억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지난 27일 개최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현재 설치된 주탑, 접속고 하부, 난간 등 노후 조명을 최신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프로그래밍 기반의 연출기법을 적용해 다채로운 야간경관을 구현할 계획을 확정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투자유치 진행상황 방문 점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 등 방문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1일 오후 강서구에 건설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BGF(BGF)리테일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투자 유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최적 투자 환경 조성

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소통 기회로 마련됐다. 부산시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전부 개정, 투자 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총 11조 5000억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에서는 강성현 롯데쇼핑 마트·슈퍼 대표와

함께 온라인 식료품 사업 비전을 공유했다.

이 센터는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국 ‘오카도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설이다. 연면적 4만 1000㎡ 규모로 약 20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8월 완공 예정으로 200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는 BGF리테일 물류센터는 연면적 12만 8000㎡로 약 2600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 가동을 목표로 K-편의점 세계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며 8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쿠팡 물류센터는 연면적 19만 8000㎡ 규모로 3000억원이 투입되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춘다. 2026년 하반기 준공돼 3000개 신규 일자리를 만들 전망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5일부터 27개 해수욕장 순차 개장

창원 광암해수욕장 등 16곳 시작

경남지역 27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부터 차례로 개장해 8월 24일까지 운영된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오는 5일 창원 광암해수욕장과 거제지역 학동몽돌해수욕장 등 16곳을 시작으로, 11일 사천 남일대와 남해 상주은모래비치해수욕장 등 6곳이, 12일엔 통영지역 3개 해수욕장이 개장한다고 밝혔다.

특색 있는 테마 해수욕장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어 반려동물

해수욕장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사해수욕장은 올해도 반려동물 전용 샤워장, 간식 교환소,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패들보드 체험 운영 등 방문객 수요에 맞춘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거제 와현 장애인 해수욕장, 남해 상주와 송정의 레저힐링 테마 복합형 해수욕장, 남해 사촌 향토체험형 해수욕장 등을 운영해 다양한 추억을 선사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인명사고 없는 해수욕장을 위해 안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 점검

해남군은 오는 9월까지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국가지점번호판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등산로·해안가에서 재난 및 사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소정보누리집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 메뉴에서 주변 국가지점번호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창원시

누비전 200억 규모 발행

창원시는 침체된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누비전은 모바일형으로만 판매되며 개인당 할인 구매 한도는 20만 원이고 할인율은 7%로 책정됐다.

구매일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는 누비전 앱을 비롯해 비페제로페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올원뱅크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누비전과 기프트콘을 결합한 새로운 모바일 상품권 ‘누비콘’을 출시한 바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청도군

청도 복숭아 수출 선적식

청도군은 지난 30일 삼성산작목반 선과장에서 ‘2025 청도 복숭아(미황·조황)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적식은 경북 복숭아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도산 복숭아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기 출하 품종인 ‘미황’과 ‘조황’ 복숭아가 주요 품목으로 선과 작업을 마친 뒤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

청도 복숭아는 최근 동남아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청도(경북)=김준한 기자

봉화군

‘청량산 캠핑장 조성’ 환영

봉화군은 최근 수원특례시의회가 청량산 캠핑장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21억 원 규모의 추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공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봉화군과 수원시가 지난 6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해온 도시와 농촌 간 교류 사업의 실질적인 첫 성과로 평가된다. 양 도시는 청량산 집단시설지구를 캠핑 거점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고,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안동 종가문화 경험하며 일·휴식 누려요”

‘안동 종가 위케이션’ 운영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종가 위케이션’을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서 깊은 종가문화와 지역 고유자산을 기반으로,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안동형 위케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다.

‘안동 종가 위케이션’은 도산면 선

성헌문화단지 내 전통 민가촌과 한옥 체험관을 숙박 공간으로, 옛 관아를 복원한 인리청과 형리청을 업무 공간으로 활용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한옥에서 머무르며 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며, 가양주 체험 등 종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